

복강경보조 원위 위절제술 후 수기 위십이지장문합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민영돈, 정귀애, 나은중, 김성환

(배경 및 목적) 복강경을 이용한 위절제수술은 개복 수술과 비교하여 효과를 전향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미흡하여 아직 종양학적 의의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최근 경험이 축적되어 기술적으로는 안전한 술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적은 수술 상처와 복강내 장기의 최소 조작으로 수술 후 회복이 빠르는데 있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수술 수기 학습기간이 타 장기에 비하여 길게 걸리며, 의료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국내 의료체제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의료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저자들은 개복 위절제술에 익숙한 외과외과가 시술하기 용이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복강경보조 원위 위절제술 후에 위 적출 창상을 통해 수기 위십이지장문합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기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보조 위절제술의 복강내 조작을 마친 후 상복부에 5 cm 길이의 정중 수직 절개로 개복하고 위를 적출하여 원위부를 절제하였다. 위십이지장문합은 복층으로 연결하였다. 먼저 위와 십이지장의 각 후면을 장근육층 봉합하고 이어서 전층을 연속 봉합하여 연결한 다음 전면을 장근육층 봉합하였다.

(결과) 복강경보조 원위 위절제술 후 정중 수직 소절개창을 통해 위십이지장문합을 수기로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수기문합은 기계문합에 비해 수술시간이 더 소요되었지만 문합부에 미치는 긴장도가 낮고 문합부 출혈의 위험도 없었다.

(결론) 복강경보조 원위 위절제술 후 수기 위십이지장문합은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다.